

제주대신문

1954년 5월 27일 창간 대표전화 (064)754-2277

news.jejunu.ac.kr

2011년 3월 9일 수요일 제848호

학생식당 밥값 최고 5백원 인상... “물가급등 실감”

학사반점 탕수육은 최고 3천원 올라

음식질 개선과 신선한 재료 준비에 최선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밥 먹을 수 있는 곳이 학생식당인 데 이제 이마저도 부담스러운데...”

최근 물가급등으로 식재료 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학내 학생식당의 메뉴가격이 지난 2일부터 최고 500원이 올랐다. 학생들도 치솟는 음식값에 여기저기서 한숨을 터트리며, 생활물가 급등을 지표에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체감하게 된 것이다.

학생식당 운영자인 소비조합은 식재료비 및 가스비 상승을 이유로 지난 2일부터 정식은 1700원에서 1900원, 특식은 2500원에서 2800원, 중식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200~300원 인상됐다. 또한 학생식당 양식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이 올랐으며, 라면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소비조합 관계자는 “종전 단가로는 학생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내놓기가 힘들다”며 “물가폭등과 식당 이용자수 감소 등으로 학생식당의 적자가 늘어난데다 식당 적자를 보완해줬던 자동판매기 판매수익도 작년에 비해 3000만원이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여파가 ‘밥값 안전지대’

로 분류되던 학내 다른 식당까지 영향을 미쳤다. 식당 운영업체들은 “작자가 난다”며 이번 새학기부터 밥값을 올리고 있다.

교수회관 식당도 떼고기기 들어간 메뉴는 30%, 일반음식은 15%정도 가격을 인상했다.

교수회관 식당 사장은 “구제역으로 인해 고기값이 너무 올라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식자재 가격 상승으로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난다. 밥값 인상을 결정한 것은 생존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학내 글로벌하우스와 학사반점도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구제역 여파로 가격이 폭등한 떼고기기 관련 메뉴의 인상폭이 커졌다. 학사반점의 경우 대부분의 메뉴가 1000원 이상 가격을 인상했고, 탕수육은 무려 3000원이나 가격이 올랐다.

강보배 기자

새내기들에게 학문의 기쁨을... 2506명 입학

배지달기 행사

오케스트라 공연도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지난 2일 10시에 체육관에서 신입생 250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제주대는 모집정원 100%가 등록해 정원에 미달하는 학과가 없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전원에게 제주대 배지를 나눠주는 이색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허향진 총장은 김소연(행정학 1) 신입생 대표에게 대학 배지를 달아줘 학교 사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서영진(입학관리과) 입학팀장은 “무미건조했던 입학식 분위기를 바꾸고 학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지 달아주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대학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신입생을 위해 문화광장 첫 공연은



허향진 총장이 김소연(행정학 1) 신입생 대표에게 제주대학교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으로 제주대 오케스트라가 초청돼 공연을 펼쳤다.

올해 신입생인 박형진(통신공학 1)씨는 “신입생을 위한 오케스트라 공연이 인상적이었다”며 “딱딱한 입학식이 아닌 즐거운 입학식이 펼쳐져 앞으로의 대학생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교수회 정기총회

오는 14일 글로벌하우스

교수회(회장 양길현)가 오는 14일 글로벌하우스 2층에서 2011년 제주대학교 교수회 정기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대만(윤리교육전공) 총무의 사회로 교수회·평의회 규정 개정 및 교수회 사업·회계 감사보고가 이뤄진다. 또 교수회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사무국장에 이문희씨 발령

제주대 사무국장에 이문희(58) 한국교원대 사무국장이 1일 자로 발령됐다.



이문희

신임 이문희 사무국장은 대구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강원대 총무과장, 방통대 사무국장,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경북대 사무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 도입 ▶4면 허향진 총장 취임 1주년 특별대담 ▶6면



입학식사

열정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2011학년도 제주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의 지원스러운 제주대학교 입학을 우리 대학 가족 모두가 뜨거운 기습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참으로 오랫동안 기대해온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갖 정성으로 오늘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을 뒷바지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축하와 더불어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환 총동창회장님과 신영근 기성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많은 경쟁자들 가운데서 영예롭게 선발되어 우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전국의 수많은 신입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새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대학생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학 생활 4년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쟁력이나 위상 또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4년간 두 가지 만큼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영어 하나는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화 정보화의 여파로 지금 지구는 하나님의 경제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국제 통용어인 영어로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국제사회와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어는 이제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교양인이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필수언어가 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야 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촌이 되면서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다양한 피부색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제주대학교만 하더라도 수많은 나라에서 5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 작은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마저 다른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여러분과 같이 강의를 받고, 실습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양의 고전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은 책들을 섭렵해야 합니다. 교수님들과 선배,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과 더불어 사는 동료의식은 물론이고, 다문화시대를 아우르는 포용력도 갖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내기 여러분,

우리 대학은 그 동안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글로컬 시대의 뉴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새롭게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지역적인 시야를 갖되 지역발전에도 앞장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높이기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과 취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장래에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매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는 친구, 선배, 학과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 등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돋고자 노력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은, 열정적인 삶입니다. 대학생 활동은 신중한 선택, 열정적 삶,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의 순환과 정입니다. 대학에 처음 입학한 여러분은 수강신청부터 등교 활동, 각종 활동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여러분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했다면 이제 그 선택에 대해 모든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책사업, 학교에서 특별히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 학과 교수님들께서 마련한 진로프로그램 등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택하고 지성을 다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멀리, 깊게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주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계발하고, 넓고 넓은 세계 속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고, 그 꿈에 도전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 꿈이 이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대학 모든 구성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제주대학교의 발전이 오늘 입학하는 여러분 자녀의 발전입니다. 우리 대학교는 진리, 정의, 창조의 교훈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열정적으로 교육하고, 제주와 세계를 누비는 ‘글로컬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과 애정, 그리고 관심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제주대학교의 새 가족이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한 뜻을 모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JUMP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빛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뛵니다.

가슴 뛰는 일상으로 빠져보실래요?

모집대상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원서마감 3월 31일 목요일

장소 본관 대학원동 3층

의 제주대신문사(754-2277) 교육방송국(754-2284) 영자신문사(754-2281)



새 제호, 새 디자인, 새 활자체 편집 대혁신... 확 달라진 제주대신문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 구축... 대학 신문서 독보적 위치

제주대신문은 1학기 개강호인 3월 9일자 848호부터 읽기 편하게 개발된 새 글씨체를 도입하고 제호와 편집 디자인을 혁신한 새로운 스타일의 신문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간다.

지난 1996년 8월 21일자(제555호)부터 국내 대학 최초로 낸은 판형을 버리고 전자신문제작시스템(CTS)과 선진판형을 도입한 제주대신문은 이번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개성적인 대학신문으로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CTS) 구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 인쇄미디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한 (주)서울시스템과 계약하고, 지난 1월 신문 규격 및 제작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후 한달간 학생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면제작기와 기사입력기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벌였다.

이에 따라 신문제작 시간 단축으로 현재 학생기자들의 신문편집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신문제작시스템의 운영지원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중앙 및 지방언론사가 이 제작시스템을 채택

하고 있어 학생기자들의 언론사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신문 글씨체는 여러 차례의 실험과 연구를 통해 조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눈의 피로감을 줄임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신문을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신문활자는 가로쓰

자의 식별이 용이해졌다. 다음 글자와 글 줄 사이의 간격을 알맞게 조정해 속독할 때에도 읽기의 맥이 끊기지 않게 됐다.

이번 제호 및 편집 디자인과 신문 글씨체 폰트는 제주대신문과 (주)서울시스템 폰트연구개발부가 공동개발했다.

학생기자 업무량 줄고 언론사 취업에 유리

오늘부터 제호, 본문 활자체 변경... 지면도 혁신

첫제목 축소하거나 배제·더 읽기 쉽게 편집

기와 세로쓰기 겸용으로 설계돼 있어 글자의 간격이나 단어 사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글자 획의 가로 세로 굽기 또한 비례가 같지 않아 가독성과 조형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이번에 도입한 새로운 신문활자는 가로 글줄의 흐름을 가지런히 하여 문장 전체의 모양이 깨끗하고 막힘이 없으며, 글자의 자음을 크게 확장해 판형성과 변별력이 뛰어나도록 했다.

글자 속 공간도 고르게 배치하여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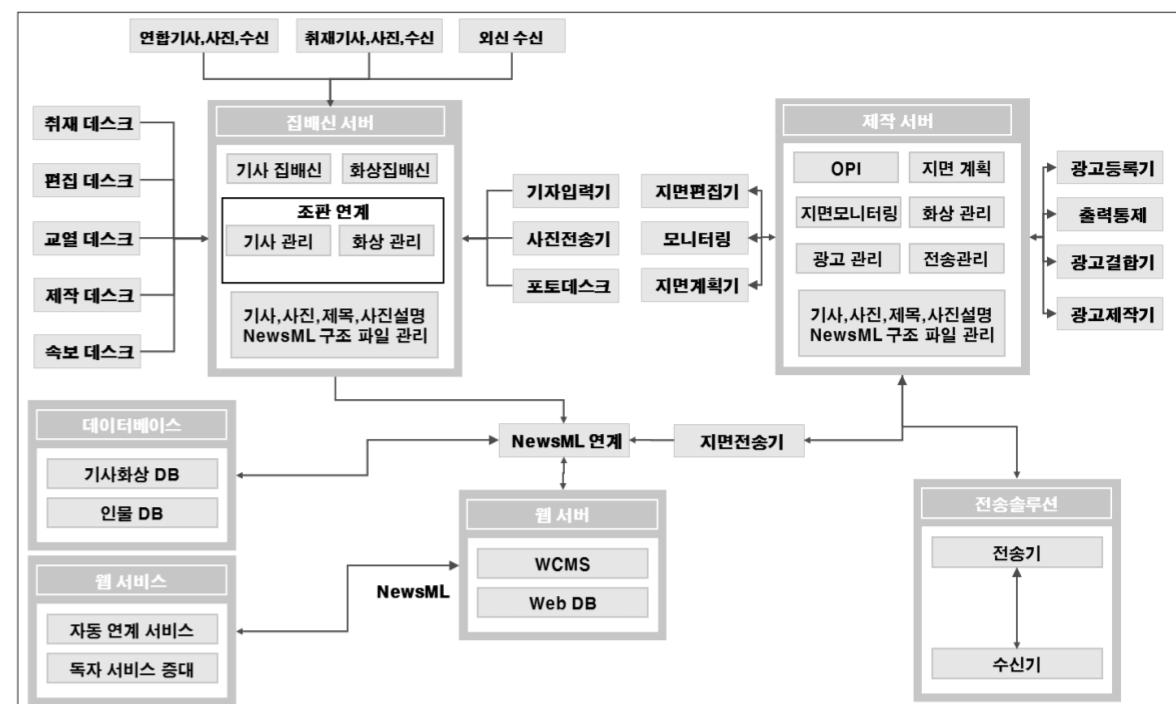
또한 제호와 신문 글씨체의 변모와 함께 제주대신문의 제목과 기사 배열 등 편집 디자인도 크게 바뀐다. 각 지면의 앞머리에 시커멓게 자리잡았던 첫제목이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어지럽게 얹혀 있던 제목들이 단정하게 정돈되고, 사진이 시원하게 커지며 다양한 그림과 도표가 이해를 돋운다.

기사 제목에 사용하는 것은 기사를 인위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

이다. 첫 때문에 제목이 차지면 다른 제목들도 덩달아 커진다. 결과적으로 요란하게 큰 제목들로 가득찬 지면은 차분하게 뉴스를 전하고 내용을 분석하기보다는 사건의 과정된 결모양을 먼저 받아들이기를 독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제목이 차지하면 면적이 줄어들면 사진을 시원하게 크게 신고도 오히려 깊이 있는 내용을 차분하고 읽기 쉽게 더 많은 뉴스를 담을 수 있다.

특히 요즘 신문 편집 추세에 맞춰 비주얼 이미지를 크게 강화한 새 편집 디자인은 읽는 스타일의 신문에서 느끼는 신문으로의 변화를 주도한다.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이면서 좀 더 시원한 편집을 위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절제된 선을 사용했다. 주요 코너별 특성에 맞춰 대표 색상도 선정했다. 대학신문이 갖고 있는 획 일적인 구조와 편집관행을 고집히 탈피, 1면에 주요기사를 시작화하고 함축성 있게 요약하여 독자들이 주요기사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과 박스를 규제하여 지면의 산뜻함을 강조했다. 지면 위의 모든 시각적 요소들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체감을 부여했으며, 강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CTS) 구성도.

하고 굵은 서체와 부드럽고 가는 부제를 대비시킴으로써 시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면에 시각적인 효과를 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대신문은 1990년 3월 주간 발행이 시작된 이후 1994년 8월부터 주 8면 발행체제로 정착됐으며, 전자화상편집기(CTS)를 도입한 1996년 8월 21일자(제555호)부터 자체 편집하고 있다. 제주대신문은 매년 8500부씩 발행되어 재학생과 교직원, 각 학교, 발전기금 출연자, 동문, 공공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고 있다.

강보배(정의3) 편집국장은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 도입에 따른 편집 디자인과 지면개편은 독자들과의 거리를 좁혀 대학내 소통의 장으로 서기 위한 자기개혁의 과정"이라며 "갈수록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상황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JDC 대학생 아카데미

University Academy

기간 ▶ 2011년 3월 8일 ~ 6월 21일(개강 3월 8일)

| 홈페이지 | www.jesusori.net
| 페이스북 | facebook.com/JDCAcademy
| 블로그 | blog.naver.com/JDCAcademy
| 문의 |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T.064) 754-2114

강의일정

3월 8일	3월 15일	3월 22일	3월 29일	4월 5일	4월 12일
변정일 JDC 이사장 국제자유도시와 우리의 도전	구본영 구본영 변희경연구소 자주롭고 싶다면 변화를 꾀하라	크리스티나 미네들이수 출연	박상원 연극적 상상과 창조적 열정 배우/프린트	박경철 박경철 경제포커스 진행자/의사 세로문 리더십의 방향과 조언	박종하 박종하 칭송연연구소 KAIST 박사 창의성에 관한 세계적 키워드
4월 26일	5월 3일	5월 17일	5월 24일	5월 31일	6월 7일
문정인 연세대 교수 중국의 내일을 묻다	허영호 LG 인터테크 CEO 비범적인 인재상? 그 품격 향하여	스티브김(김유종) 아시아의 빛과 같은 '스타'의 성과와 회사 행복을 주도하는 삶	지승률 민원웨이트 대표 아시아의 빛과 같은 '스타'의 성과와 회사 행복을 주도하는 삶	정인영 네이버트릭스 대표 세계화 시대 온라인 계열회사 넥슨과 차세대 글로벌 리더십	이금룡 (주)오피온 회장 디지털시대의 창조적 리더십

주최 · 주관 |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의소리

신문 제호 디자인 제주대 UI와 동일 서체로

"힘 있고 안정된 느낌"... 새 편집시스템 구축 맞춰 새단장

제주대신문이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CTS) 구축에 맞춰 현대적 감각으로 새로운 제호 디자인을 선보였다.

흔히 신문의 제호 디자인은 그 신문의 얼굴에 비유된다. 독자들이 신문을 만나 처음으로 눈길을 던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호 디자인은 이런 단순 구별 기능뿐 아니라 신문이 주구하는 가치를 시각적 형태로 응축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제주대신문이 새로운 제호 디자인을 내놓은 것은 차세대 신문제작시스템 도입에 맞춰 본문·제목의 새활자와 지면 편집 개선에 따라 '새로운 신문을 선보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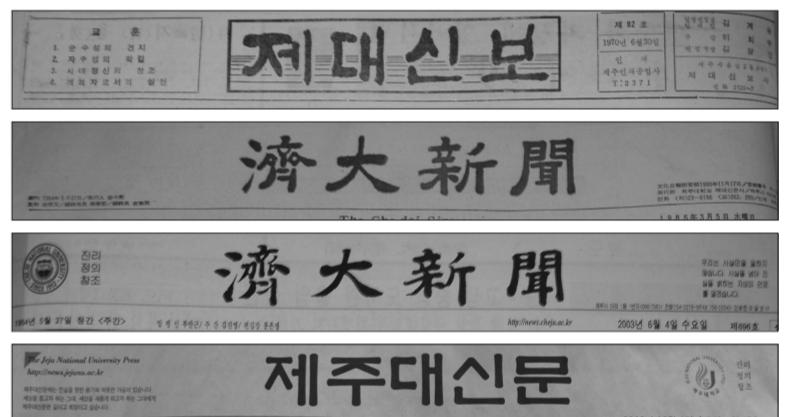
종전 제주대신문 제호는 2004년 4월 12일부터 <제주대신문> 한글 반포체를 사용했으나, 제주대신문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주대학교 서체와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 제호 서체를 제주대학교 로고 서체와 동일하게 바꿨다. 이번 제호 디자인은 부드럽게 돌아간 곡선과 날카롭게 각이 진 직선의 조화로 유려하면서도 힘 있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 신문 머리띠 좌측에는 애교심을 키우기 위해 제주대학교 교가를 실었고, 우측에는 제주대학교 로고 디자인과 교훈인 진리, 정의, 창조를 게시했다.

고호성(법학전문대학원) 주간교수는 "시대가 변하고 독자들이 앞서 가는 상황에서 제주대신문도 크게 변해야 한다"며 "새 제호 디자인은 제주대신문이 제주대학교와 함께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진보적 가치를 끌고지기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문제작시스템 변화에 맞춰 제주대신문의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도 변경하게 됐다"면서 "향후 제주대신문은 제주대학교의 정체성을 계승하고 지면색상 및 차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대신문은 1954년 5월 27일 <濟大新聞>으로 창간된 이후 시대변화에 맞춰 제호와 편집체계가 바뀌었다. 1959년 4월 <濟大新聞>에서 <濟大新報>으로 변호가 변경됐다. 1986년 3월 <濟大新聞>에서 <濟大新報>으로 제호가 변경됐다. 1986년 3월 5일자 신문부터 전면 가로쓰기편집이 이뤄지



신했다. 새 제호의 크기는 가로 14.7cm, 세로 2.5cm로 이전의 제호보다 10% 커져 보다 힘 있고 중량감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첫 면 헤드 배경은 물론 고유 색상도 전면적으로 손질됐다.

이제 친근감 있고 현대적이면서 전통을 내포한 제주대학교 서체를 활용한 <제주대신문>이라는 제호 디자인을 채택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 <제주대신문>은 학생기자들의 땀과 눈물이 뱉 지면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제주대신문사 약사

- △1954.5.27. 제대학보 타블로이드판 창간호 발행
- △1959.4. 제대신문으로 제호 변경. 브랑케트판 제1호 발행
- △1961.3.15. 제대신문보로 제호 변경
- △1970.4.30.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뀜(제91호)
- △1971.4.15. 가로쓰기 및 한글전용으로 바뀜(제99호)
- △1973.3.15. 세로쓰기로 바뀜
- △1980.11.29. 10월 17일 문공부에 등록(등록번호:라-2497호)
- △1982.3.15. 종합대 개편에 맞춰 격주간으로 발행(제206호)
- △1986.3.5. 제대신문으로 제호변경 전면가로쓰기(제285호)
- △1987.12.30. 개교 35주년 기념 제대신문 축제영인본 I · II 권 발간
- △1994.8.23. 주간 8면 발행 시작
- △1995.11.1. 공보처 · 교육부 주관 전국학생신문대상서 특별상 수상
- △1996.8.21. 전자화상편집기 도입(CTS). 자체 편집 시작
- △2004.4.12. <濟大新聞>에서 제주대신문으로 제호 변경(714호)
- △2004.5.5. 제주대신문 50주년 기념현판식
- △2010.9.1. 제주대신문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JUMP』개통

공부는 중앙도서관, 몸 아프면 건강증진센터, 식사는 학생식당, 이동 수단은 순환버스 이용을

새내기 대학생활 짜임새

대학 시설 200% 활용법!

2011년 부푼 꿈을 안고 새내기들이 드디어 제주대학교에 입성했다. 새내기들을 처음 맞은 것은 고등학교 때와는 다른 넓은 캠퍼스. 광범위한 캠퍼스 면적 때문에 수업 받을 강의실을 찾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학교시설을 200% 활용하는 법을 알아보자!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은데 학생증이 없을 때에는?

신입생들은 아직 학생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책을 대출하고 싶어도 대출 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중앙도서관 2층 도서대출실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책을 빌릴 수 있는 임시대출 바코드를 받을 수 있다.

책은 한 번에 다섯 권을 대출 할 수 있고 기한은 일주일이다. 연장신청은 도서 당 1번 만 가능한데 기한은 연장한 날로부터 일주일이 연장된다.

학기 중 중앙도서관의 국내서 자료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다. 또 제 1·2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제 3열람실과 자유열람실은 24시간 개방된다.

공부를 하려고 중앙도서관에 갔는데 자리가 없을 때는 제2도서관이나 법학전문대학

도서관, 의학전문대학도서관을 활용해 공부를 할 수 있다. 단 법학전문대학도서관과 의학전문대학도서관은 저녁 6시까지만 개방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상처가 났을 때에는 대학원동 1층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무료로 처방과 상처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화요일에는 제주대병원 신경경신과 김문우 교수에게, 수·금요일에는 제주대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비만도, 체질량지수, 근육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체성분 검사'와 GOP·GPT(간 기능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학과행사나 동아리행사를 하려는데 구급약이 필요할 때 하영dreamy를 통해 3~4일 전에 신청을 하면 구급약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학기 중엔 심폐소생술 교육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육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본관에는 건강증진센터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많다. 아라홀은 학용품 및 식료품을 판

매하며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교양동과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교양수업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하다.

대학원동 1층에는 취업전략부분은 취업·진로 상담은 물론 취업캠프나 해외인턴십과 같은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곳이다. 특히 취업전략부분 옆에 있는 잡카페(job caffé)에서는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준비돼 있다. 취업 및 교양관련 서적을 비치해 필요한 경우 도서대출도 해준다.

교양동은 교양수업만 받는 건물이 아니다!

물론 교양동은 기본적으로 교양수업을 받는 공간이다. 하지만 교양동 안에는 수업을 받는 강의실 외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있다. 바로 교양동 2층에 있는 기초교육원.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노트필기 작성법, 리포트작성법 등의 특강과 워크숍을 활용하면 A+는 따놓은 당상이다. 연말에는 우수포트폴리오와 리포트 공모를 통해 우수학생에게는 상금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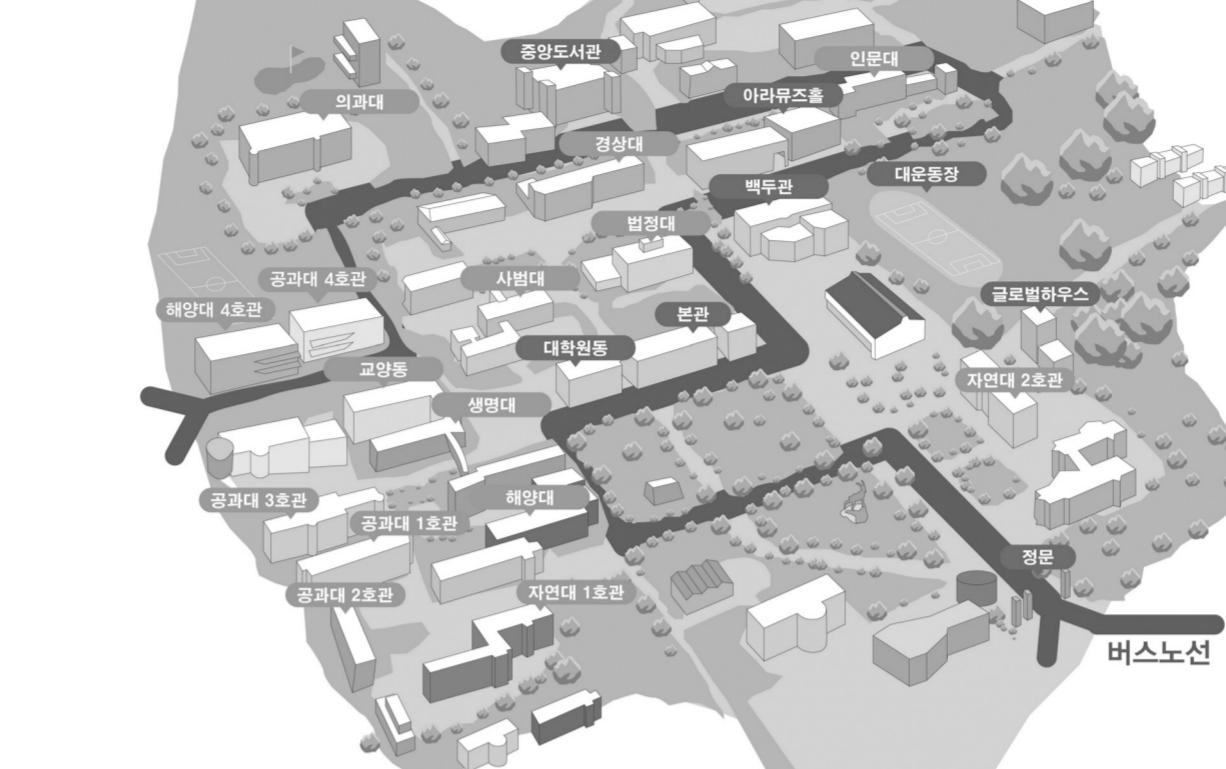
학생회관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다!

학생회관은 제주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가본 적이 있는 학생들과 가장 친숙한 건물이다. 학생회관에는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총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 중앙자치기구들이 있다. 또 학생회관 2층 총여학생회실 옆에는 공부에 지친 여학우들을 위해 여학우면실이 따로 존재한다. 이곳은 오직 여학우만을 위한 공간으로 내부는 원룸형태이며 침구류가 비치돼 있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 여학우면실은 총여학생회에서 운영한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시험기간 때마다 슬리퍼와 무릎담요 대여해준다.

이외에도 학생회관에서는 저녁이면 멋진 음악들이 흘러나온다. 이 음악들에 진원지는 동아리 방들이 즐비해 있는 학생회관 3, 4층 로비이다. 음악동아리들은 저녁이 되면 로비에 모여서 악기연습을 한다. 이 광경은 마치 공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제는 웨딩시대 운동은 이곳에서!

축구를 하기 위해 대운동장을 빌리려면 적어도 2·3주 전에 신청서를 통해 예약을 해야한다. 평일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지만



제주대 캠퍼스 맵. 각각의 건물명과 순환버스 노선이 표시되어 있다. 순환버스는 정문-해양과학대학 서쪽-대학원동 앞-학생회관 남쪽-중앙도서관 앞-의과대학-공과대 4호관-해양대 4호관을 순환한다.

주말에는 4만원을 내고 운동장을 빌려야 한다. 단 학생은 조교수의 서명을 받아오면 1만원이 할인된다. 예약 후 사용시간은 2시간이며 개인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은 무료다. 제2운동장은 신청서를 통해 예약을 해야 한다. 단지 대운동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용요금이 무료라는 점이다. 대운동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은 특별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요금도 무료다. 그러나 이용할 때 운동화와 체육복을 입고 운동을 해야 한다. 또 제주대학생이라면 무료로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 체육관 이용에 앞서 먼저 체육관 안에 있는 체육진흥센터에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단 주말에는 사용이 안 되고 학과행사나 동아리행사처럼 공식적인 행사만 미리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복사를 하려면 이곳을 찾아가라!

복사는 중앙도서관 곳곳에 위치한 무인복사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 때 복사카드를 구입한 후에 복사카드를 이용해서 복사를 할 수 있다. 복사카드는 5000원부터 충전해서 사용가능하며 카드비용은 500원이다. 복사비용은 1장 당 30원이다. 복사카드는 중앙도서관 지하 1층에서 판매한다.

복사를 하려면 이곳을 찾아가라!

그리고 중앙자치기구에 가면 무료로 복사나 인쇄를 할 수 있다. 단, 복사나 인쇄에 필요한 용지는 직접 가져가야 한다. 이외에도 일부 단과대학에 복사실을 이용하면 복사나 인쇄가 가능하다. 취업관련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경우 취업전략부분의 잡카페에서도 무료로 복사나 인쇄가 가능하다.

교수회관 식당은 중앙도서관 옆에 있으며 양식과 한식 위주의 메뉴를 판다. 교수회관 식당이라고 교수님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다.

학생회관 1층에는 교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한 끼 식사를 해결 할 수 있는 학생식당이 있다. 학생식당에는 정식, 특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가 있다. 정식은 교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로 1900원에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다. 정식이 성에 차지 않는다면 2800원으로 특식을 먹으면 된다. 특식은 일반 식당에도 뛰어지지 않는 탄탄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양식과 중식, 라면 등 입맛에 따라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

가끔 친구들과 여러 가지 메뉴를 함께 먹고 싶을 때는 학사반점과 이용하면 된다. 학사반점은 글로벌하우스 지하에 있으며 한식, 중식, 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글로벌 하우스 1층은 뷔페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곳 2층은 방과 휴대 나뉘어 있는데 일반 레스토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양식과 한식, 중식 위주의 메뉴를 판매한다. 식사를 하기기에 시간이 부족할 때는 각 단과대학마다 있는 매점이나 학생회관에 한라홀과 종합매점, 본관에 아리홀과 같은 구내매점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같이 교내에 있는 식당만 잘 활용해도 배고픈 청춘이라는 말은 옛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넓은 캠퍼스. 순환버스를 이용하면 밭밭길은 없다!

순환버스는 위의 사진에 나온 노선을 따라 캠퍼스를 순환한다. 버스비가 무료라서 주민이 가벼운 새내기들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다. 첫차는 오전 7시 50분 정문에서 출발하며, 막차는 오후 6시 55분 해양대 4호관에서 출발한다. 신동원 수습기자

언론미디어센터 수습기자 모집



지난 7일 제주대신문 편집국에서 신동원(중문3) 기자가 신문면집을 하고 있다.

"평범한 학생으로 남았더라면 학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고충을 물었을 겁니다. 학생기자로서 그들을 취재하면서 세상에 대한 마음을 크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의미는 자신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한낱 손으로 얻은 영어실력과 어디에 쓰일지 모를 자격증이라면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잘못된 흐름을 짚어낼 수 있는 이성과 어桀은 뛰어다닐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싶다면 언론미디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따뜻한 가슴과 차가운 이성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언론미디어센터입니다.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사(754-2277)
교육방송국(754-2284)
영자신문사(754-2281)

대상: 11학번 새내기
혜택: 장학금, 취재수당, 국내·해외 취재기회, 언론 교육 및 기자연수, 개인 책상 및 컴퓨터 제공 등
모집: 3월 31일(목)까지
접수: 본관 동쪽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홈페이지: news.jejunu.ac.kr

"먼저 다가서는 실천적 총학생회 될 것"

인터뷰

제43대 똑똑똑 총학생회 출범식

- 어떤 총학생회를 만들 것인가.

"학생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어도 이를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원래 이런 불편을 대신 본부 측에 전달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생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생회 자체를 어려워하고 불편하게 여긴다.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학생회가 되고 싶다. 또 단순히 학생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불편을 들는 학생회가 되겠다."

- 중첩적으로 추진할 공약.

"특별히 어떤 공약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모든 공약을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학교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본부 측에 도움을 받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부 측에만 요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두 가지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먼저 취업전략부분을 통해 진행해 오던 인터넷 공무원 강의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에 예산배정이 안 돼 진행할 수 없어 됐다. 그렇지만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강의를 확대하거나 모의 공무원 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



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해당업체와 접촉을 해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시설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설사업비는 단순히 총학생회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단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 단순히 단과대학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큰 단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

- 교육대학 학생들과의 교류 활성화는 어렵게 이뤄낼 것인가.

"통합이 이뤄진지 3년째가 됐지만 아직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류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여학생 인권신장과 복지해결에 온힘"

인터뷰

제26대 女보세요 총여학생회 출범식

- 출범 소감.

"이번 총여학생회 선거는 경선이어서 열띤 경쟁이 있었다. 우리가 당선이 됐지만 상대후보의 공약까지 안고 가야 5천 여학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공약을 잘 이행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

- 총여학생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총학생회가 1만 아래 전체를 대표한다면 5천 여학우를 대표하는 기구는 총여학생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총학생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학우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생리공결과 같은 문제들은 총학생회보다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총여학생회는 대학 내 여권신장과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기구 이기도 하다. 지금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지위를 평등하게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총여학생회는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 약자화가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매달 8일을 여학우의 날로 지정해 서 여학생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다. 여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을 귀 기울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대학 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는 무엇인가.

"학내 성차별이 많이 나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특



히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생리공결제는 여전히 일부 교수님들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출범식날 학장님들께 직접 찾아가 생리공결제 관련 공문을 드리는 등 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생리공결제 약용도 큰 문제다. 여학생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제2도서관에 여학우열람실을 만들 예정이다. 여학생들은 시험기간에 외교에 신경을 쓰면서 도서관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여학우열람실이 생긴다면 여학생들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도서관에 여학우열람실과 더불어 남학우열람실과

공동열람실도 만들 것이다.

또 매달 8일을 '여학우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할인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할 것이다. 이날에는 화장품 샘플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일찻집을 열어 여학생들이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외에도 한복기관을 선정해 매달 여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학생들과 지역사회간, 총여학생회와 여학생간에 소통의 장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의 이야기에 언제나 귀기울이는 총여학생회가 되겠다. 앞으로 총여학생회가 공약을 잘 지켜나가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신동원 수습기자

강보배 기자

“대학 운영, 소통하고 설득하며 가슴 열고 받아들이겠다”

● 특별대담 취임 1주년 맞은 여양진 총장

제주대에서 조용한 '도전과 변화'가 진행 중이다. 대학운영의 질적 기반 구축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시작으로 상당한 재정지원을 가져오고 있는 국책사업 유치, 국제화 저변 확대, 취업지원 시스템의 전문화, 발전기금을 비롯한 외부자원 유치의 다변화와 수익 사업 모형의 지속적 개발… 그 내용 하나하나가 '지역의 대학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다. 이처럼 혁신적인 일들이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교수진과 학생 등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과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다.

대학개혁과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허향진 총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향후 제주대의 비전과 1년여간의 조용히 전개해온 일들을 풀어놓았다. 허향진 총장은 "평소 머리를 채웠던 구상을 현실로 옮기느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다"며 "교수님들의 동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소통구조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선 취임 1년을 회고한다면.

"지난해 2월 17일 제8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장 취임 후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대학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대학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도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대학을 둘러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 틀을 바꾸는 데 취임 후 1년을 주력했다. 과거의 틀을 갖고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음을 실감하고 있다."

취임 후 대학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 아래, 대학 경상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교육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립대학 법인화 등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워왔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결코 만족하지 않은 개혁 작업을 추진했지만, 구성원 모두의 대승적인 협력과 양보에 힘입어 원만히 해결해 낼 수 있었다. 이제는 진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교 60주년 계기로 경쟁력 키워 국내 20위권 대학 만들 것

학생들은 인간성 · 도전정신 바탕에 진정한 실력 길러야

강의평가 공개는 학생만족서비스… 재학생 20% 외국인 충원

-대학 경쟁력과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발전 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는 '제주대학교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우리 대학의 비전을 '글로컬 시대의 뉴리더, 혁신하는 명품대학'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전 지역적인 시야를 갖되 지역발전에도 앞장 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지향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세계 속의 명품대학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있다. '선진화 정책 실천 로드맵'은 총장 임기 동안 역점적으로 시행할 6대 선진화 전략과 10대 중점 아젠다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세부 추진과제가 175개에 이른다. 그 만큼 대학 미래를 좌우할 방대한 과제로서 대학 구성원들의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또 각 부서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되는 전략적 사업들은 '미래 발전연구단'과 '법인화 연구위원회' 등에서 정책과 제로 따로 추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허향진 총장은 "평소 머리를 채웠던 구상을 현실로 옮기느라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다"며 "교수님들의 동의와 함께 학생들과의 소통구조가 갖춰진 만큼 앞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국적으로 10개 대학에 지나지 않음으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였다."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항상 열악한 재정사정이 걸립니다. 앞으로 자율적 재정 기반 확대를 위한 발전기금 모금 방안과 대학 경영수 입 증대를 위한 획기적 방안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이 중요하다. 국립대학은 이 재원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지하고 있다. 우리 대학교 발전기금 누적액은 현재 724억 8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 서는 안된다.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1,000억원 시대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한다. 그렇기 위해 총장의 권위는 빼고 돈 모으는데 빨렸고 뛰어나고 있다. 최근에 제주대와 관계없는 가정주부도 멀리서 성금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기부의사도 밝히고 있다. 다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목표치를 달성을 자신이 있다. 특히 올해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자립적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취업전략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한정된 고용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취업 향상을 위한 방안은.

"총장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취업 경쟁력이다. 특히 졸업생 취업은 대학 경쟁력의 핵심이다. 교수의 연구성과 지표와 함께 학생 취업률은 대학 평가의 기본지표일 뿐 아니라, 대학 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대학 평가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은 기업 채용 패턴이 매우 다양하여 빠른 대응이 필요해 취업 직후 총전 직업능력개발원 조직을 격상시켜 취업전략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작년 전국 국립 25개 대학 중 취업률이 48.9%로 17위를 기록했다. 올해 목표인 52%를 달성하면 25개 대학 중 상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제주상공인대회, 취업박람회 등 지난해의 값진 경험을 살려 취업률만큼은 전국 국립대학 가운데 중상위권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직원들도 대학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체널이 아닌 교육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조직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직원 개개인이 서비스맨으로서 대학은 최대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수를 위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직원들은 스스로의 근무 자세나 친절 마인드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또한 근무 태도에 문제 있는 직원들은 예외 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함으로써 일벌백계를 하겠다. 대학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의 책무와 공직자의 본분에 걸맞은 충실향 복무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내년이면 개교 60주년 및 종합대학 승격 30주년을 맞습니다.

"올 해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저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분야는 개교 60주년 행사에 대한 준비이다. 이는 단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의미만을 지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의 정신을 새로 세우고, 높아진 대학의 위상을 널리 알리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9개의 대학원, 11개 단과대학에 1만 1천여명이 재학하는 전국 30대 대학으로 성장했다.

또 청의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학사행정, 다양성에 기반을 둔 분권화, 각 교육단위의 자율적인 변화 풍토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대학 발전의 모습이다. 내년 개교 60주년 및 종합대학 승격 30주년을 계기로 우리 대학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내 2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만전하여 천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겠다."

-전국 20위권 대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총장님이 큰 틀에서 정책과 방향을 정하면 실제 각 부처 책임자와 직원들이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직이 비대해지고 보직교수 숫자가 많다는 지적

의 경우 학생 수가 적으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오히려 교육비 수요가 더 든다. 우리가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면 학생들도 대학이 등록금을 조금 올리는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지만, 경부가 거제가 밀어붙여 법인화가 시행되면 등록금 인상이 불 보듯 하다. 현재 제주대에 자생적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대학교가 법인화로 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자치단체처럼 수직적 구조를 지닌 곳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이를

을 다 아우르기 위한 리더십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점은.

"지난 1년 동안 대학 구성원 모두의 협력 속에 내부 개혁작업과 대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대학에 잠재되어 있는 혁신역량에 깊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운영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던가. 단과대학 또는 학과, 각 부처별 이기주의는 분명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다.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러한 내부 집단간의 이기주의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단과대학, 학과 간 이기주의와 서로를 막는 내부의 장벽이 무너지지 않으면 대학의 발전은 없다. 대학 집행부가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고, 내부 갈등으로 관련 정책이 힘을 얻지 못해서 되겠는가. 비판에만 머물지 않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그보다 먼저, 내 자신이 대학 운영에 있어서 소통하고 설득하며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직원들도 대학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체널이 아닌 교육서비스 및 행정서비스 조직으로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직원 개개인이 서비스맨으로서 대학은 최대 수요자인 학생과 공급자인 교수를 위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직원들은 스스로의 근무 자세나 친절 마인드를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또한 근무 태도에 문제 있는 직원들은 예외 없이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함으로써 일벌백계를 하겠다. 대학이 대

내외적으로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의 책무와 공직자의 본분에 걸맞은 충실향 복무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직원들은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해야

대학운영 비판하되 대안도 제시했으면

밖으로는 잘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주 굳어버린다. 구성원들이 제각기 색깔을 내면서 공존하도록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 학교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구성원간의 소통과 설득을 기본으로 삼겠다. 당면한 현안인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구조조정 사업, 법인화 대비 문제를 개별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 풀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

-대학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활동과 발전기금 유치, 교육 수월성 확보를 위한 산관학 협력 등 무척이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고 고맙습니다. 제주대학교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고, 취임 1주년을 맞는 소감과 지난 한 해를 회고하면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우리 제주대학교는 분명 역량 있는 대학이다. 지금대로라면 제주대의 명실상부한 미래를 확신한다. 대학 위상도 과거보다 훌쩍 높아졌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지역 사회나 우리대학 구성원들도 우리 스스로의 역량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데 있다.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 희망은 그런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단순히 우리 직장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발전, 나라의 발전에 직결된다. 대학인의 자긍심은 그런 공공적인 자각에 형성되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주구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대학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이다. 학생들에게도 한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지방대라는 한계를 두지 말고 인간성 · 도전정신을 바탕에 두고 진정한 실력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이 선택한 학교가 자랑스럽도록, 제주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되고 자부심이 되도록 행동하는 총장이 될 것이다."

955차례 방문 및 내방접견하고, 578차례 행사 참석



허향진 총장 취임 1년 업무 실적

지난달 17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은 허향진 총장의 주요 업무 실적은 어떤가.

허향진 총장은 취임 이후 국내외 협정 체결과 협력사업을 59건 맺었다. 국내대학 교류협정이나 산학협력 체결은 30건, 해외대학과의 교류협력 사업은 43건에 이른다. 대인문 활동은 신문 및 잡지, 방송 인터뷰 25건을 통해 대학주요 업무활동을 대내외에 알렸다. 결재는 1908건이 이뤄졌다.

방문 및 내방 접견은 외부 인사가 352건, 유관

기관 방문이 43건, 업무협의 회의 건수가 208건, 교수와의 대화가 198건, 각종 회의주재가 154건 등 955건의 방문 및 내방접견이 이뤄졌다.

학술대회 축사 및 격려사에 따른 외부 행사 참석이 106건, 기념식 등의 내부 행사는 111건에 이른다. 임명장 수여 32회, 발전기금 전달식 15건, 각종 간담회 314건 등 모두 578차례 행사에 참석했다. 대학 관련 대외 활동은 국 · 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나 거점대학 총장협의회 등이 11차례에 이른다. 이를 위한 국내 출장은 39회, 해외 출장은 7회 등 46차례에 걸쳐 출장을 실시했다.

“30여년 기업 키웠으니, 이젠 학생들을 잘 키워야죠”

인터뷰

김종조(에드워드코리아 회장) 석좌교수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기업들을 짚어지고 나갈 후속세대로 키워나가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지난 학기부터 공과대학이 신설한 교과목 ‘CEO에게 듣는다’ 책임교수를 맡아 국내의 명망 있는 최고경영자들을 대학에 초청해 큰 반향을 이끌고 있는 김종조(65·에드워드코리아 회장) 석좌교수의 일정이다.

김종조 회장은 “30여년의 긴 시간동안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발전을 겪어서 지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꿈을 심어주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학기 CEO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좋은 만큼 앞으로의 결실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조 석좌교수는 세계적인 진공펌프 업체인 에드워드코리아 회장이면서 미국 산호세에 본부를 둔 세계반도체장비재료협회 상임이사 겸 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 하이닉스반도체협력회사협회 부회장, 최근에 영국 에드워드 본사의 대외협력담당에 선임되는 등 반도체업계에서는 대외활동이 활성화된 기업가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원로

인사들의 새로운 퇴직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저의 성과는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운좋게 함께 한 덕분”이라며 “지금까지 받은 관심과 지원을 깊은 후학들에게 되돌려 주는 일이 남은 사명이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종조 회장이 제주대학교 석좌교수가 되기까지에는 최치규(물리학과) 교수와의 숨은 인연이 있었다. 최치규 교수는 지난 2007년 물리학·화학·재료·전자분야 등 전국 규모의 학제간 과학기술 단체인 한국전공학회 회장을 이끌면서 학회 임원이었던 김종조 회장과 자연스레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최 교수의 초청으로 2008년 김 회장이 우리 대학에서 한차례 특강을 하게 됐고, 당시 김 회장의 열정적이며 현장감 있는 강의에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런 인연이 계기가 돼 공과대학이 ‘CEO에게 듣는다’라는 최고경영자 초청 강의를 기획하면서, 김 회장이 두손두발 걷어 부치고 직접 강좌의 강사진 섭외와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김 회장은 “CEO특강을 통해 기업 원로들이 후학들에게 해줘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리가 후학들의 꿈과 희망을 북돋우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확신한다는 것.

김 회장은 “학생들에게 학벌이 좋아야 하고,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위기를 돌파하는 의지의 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원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부는 취업 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고, 이젠 공부를 억지로 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인재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남이 시킨 일을 더 효율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이나 아예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사람을 기업이 요구한다”면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 약속, 인간관계, 상대의 마음은 소중이 지켜야 할 부분이다. ‘약속시간 15분전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기억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조(에드워드코리아 회장) 석좌교수

김 회장은 끝으로 “이제는 CEO특강에서 그칠게 아니라 각 전문 분야별로 명망 있는 CEO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멘토링 강좌를 시행할 것”이라면서 “석좌교수를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복 언론미디어팀장

다음호부터 ‘CEO에게 듣는다’ 지면 연재

제주대신문은 다음호(849호)부터 ‘CEO에게 듣는다’를 오피니언 지면에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을 찾아갈 ‘CEO에게 듣는다’는 각 산업체의 명망 있는 최고경영자들이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안목과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EO에게 듣는다’ 특강은 공과대학(학장 이광만) 주최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강당에서 열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독을 바랍니다.

제주대학의 ‘바람직한 모습’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재미있는 책을 쓴 경제학자인 고려대학교 최정규교수 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경제학자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경제학의 전제를 검토하기 위해 게임이론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고 한다. 실험의 내용은 2인 1조를 짜고 그 중 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다른 조원과 서로 나눠 갖게 하는 것이었다. 1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조의 다른 사람에게 나눠 갖는 액수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각자 돈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거절하면 10만원을 몰수하는 것이 실험의 조건이었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가설이 맞는다면, 제안자는 상대방에게 1원을 제안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제안자는 자신이 0원이 아닌 어떤 액수를 제안하든 그것

을 상대방이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상대방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적인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전제와 그에 따른 논리에 따르면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99,999:1의 비율 또는 그에 근접하는 비율로 나눠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CEO 대통령으로 인해 경쟁이 칭송되고, ‘이익과 굶주림(gain and hunger)’라는 ‘경제적’ 동기로 의해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나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간을 배출하는 곳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는 것이 어찌며 당연한지도 모른다. 경제학 전공자인 교과부 장관께서는 교수들을 ‘이익과 굶주림’으로 다스리기 위해 교수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학생도 교수도 시장에 맞게 탈락할 줄 안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 시장만능 경제학은 염치보다는 계산에 밝은 인간이 되라고 하고 대학

제학은 이러한 도덕적 인간을 비합리적이라고 비유는 드립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이나 대신 합리적인 태도를 학생들이 갖도록 훈육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도덕적이고 공동체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계산적이고 부도덕한 장사꾼을 양성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CEO 대통령으로 인해 경쟁이 칭송되고, ‘이익과 굶주림(gain and hunger)’라는 ‘경제적’ 동기

로 의해 우리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나 합리적이고 유능한 인간을 배출하는 곳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는 것이 어찌며 당연한지도 모른다. 경제학 전공자인 교과부 장관께서는 교수들을 ‘이익과 굶주림’으로 다스리기 위해 교수연봉제를 도입했는데 이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학생도 교수도 시장에 맞게 탈락할 줄 안다는 것이다.

주류 경제학, 시장만능 경제학은 염치보다는 계산에 밝은 인간이 되라고 하고 대학

헌혈은 소중한 봉사이자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한다.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누리는 혜택이기도 하다. 헌혈하기 1주일 전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한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러면 헌혈을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람의 실천이자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헌혈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공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또한 헌혈을 통해 모으는 헌혈증은 백혈병 환우들에게 나눠주고 불우한 환자에게는 수혈 시 무료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

둘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지속적인 헌혈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사전에 지킬 수 있다. 헌혈 후 일주일 정도면 혈

액검사 결과가 통보된다. 감염검사, 콜레스테롤, ALT(간수치) 등 다양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어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셋째, 헌혈 1회당 봉사시간으로 4시간을 인정 받을 수가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정기준 시행령이 제정되어 헌혈 1회당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 수업료도 감면해 주고 있으며, 공공주차장 이용 시 50%의 감면 혜택도 있다. 넷째, 취업을 위한 이력서 작성시 헌혈횟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시간 인정과 더불어 입사지원서 디현혈자는 인크루트에서 헌혈인증을 등록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가 있다.

헌혈을 하고나면 음료수와 초코파이 2개는 기본이고, 우산과 여행세트, 화장품, 영화상영권 중에서 1개를 고를 수 있다. 영화상영권은 모아 두었다가 가족 또는 친구끼리 영화를 보며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혈액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지만 자발적인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헌혈의 필요성은 수급하면서도 막상 팔을 걷고 나서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신만의 헌혈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인 헌혈을 권장하고 싶다. 헌혈이 취직에서도 하나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도, 또 하나님의 사랑나눔 실천이다.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 깊고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바란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1학년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에 들어와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취해 지냈고, 군대를 다녀 온 후에는 복학생의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다. 그래서 나를 많은 대외활동과 공모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을 쓰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명이 된 것이다.

그러던 중에 어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പ만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해서 활동을 했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대학생답게 열정적이고 멋 있는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과동기,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도 친해지게 됐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엔 다시는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인연을 이어 나가게 됐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대학생 시절에 이보다 더 끈끈한 인간관계의 고리가 없다.

동문칼럼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 학생들에게는 도약의 기회



오영훈(경영학과 87학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

봄기운이 완연해야 할 3월 중순의 캠퍼스가 아직도 쌀쌀한 겨울의 흔적 이 남아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들의 어려움인 학자금의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지역경기의 문제 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 않다.

원고 의뢰를 받고 지난 20여년 전 신입생으로 입학했을 당시 내가 가졌던 꿈은 무엇이었고 지금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보았다. 또 지금의 내 후배들은 어떤 꿈을 그려나가고 있을까?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민주화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학생회 활동이 대학생활의 주가 되었던 터 학문의 탐구에 대한 열정보다는 나라의 민주화, 정의의 실현 등의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었다. 특히 지역현안이었던 4.3문제의 해결 등이 주가 이슈가 되어 꿈을 꾸는 것 그리는 것은 구체적인 개인의 삶의 목표를 추구한다 기보다는 거시적인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삶이 아름다운 것 아니라는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지만 최근의 우리 대학생들은 보다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가고 꿈을 그려나간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주라는 지역사회 페쇄성, 정보의 한계, 빈약한 기업체의 현실로 인해 그 꿈이 보다 크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여건이자 한계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한계와 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는 최근의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실시

간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를 즉석에서 영상화하여 전달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의 이집트와 인접국의 변화를 두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소셜미디어가 만든 똑똑한 군중이 무비라크의 하마를 만든 1등 공신이다. 시위대에 대한 무지비한 탄압은 동양상을 타고 전세계에 전파됐다. 영웅이 아니라 개인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했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한계와 정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삶의 목표를 세워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인생의 목표를 세워나가고 꿈을 그려나간다는 것은 예전에 비해 더욱 발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주라는 지역사회 페쇄성, 정보의 한계, 빈약한 기업체의 현실로 인해 그 꿈이 보다 크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여건이자 한계라고 할 수도 있다.

제주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여건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셜 네트워크 시대는 최근의 싸이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실시

자원봉사는 나를 크게 한다

독자기고

강건우
정치외교 4

를 벗거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자극을 받아 현재 내 자신이 과거에 비해 성장됐음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나는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자원봉사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단순히 수혜에게 나의 재능과 열정을 전해 도와주기만 된다는 그릇된 생각. 하지만 Sunny 활동을 통해 느낀 건, 단순히 수혜자를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수혜자가 소통하면서 성장 할 수 있는, 즉 주체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로 이런 생각들이 나의 뇌리에 떠오른다. 자원봉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겨울과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몸으로 느끼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었다.

그 동안의 책상 위의 펜을 잡은 손이 아닌, 딱딱한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이 되었다. 내마음 속의 뜨거운 것에 의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원봉사로부터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선물은 나에게 있어 ‘인연’이다.

언뜻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봉사활동, 더군다나 단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봉사활동 보다 재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대학생답게 열정적이고 멋 있는 친구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스스로 기획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과동기,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도 친해지게 됐다. 그래서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엔 다시는 놓치기 싫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며 그렇게 인연을 이어 나가게 됐다.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이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 대학생 시절에 이보다 더 끈끈한 인간관계의 고리가 있다.

Sunny에서는 대학생(大學生) 답게 스스로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참여해 즐거운 소통과 따스한 나눔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봉사 기회에서 나의 재능과 열정을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국 규모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석해 제주도

독자기고

강진아
중어중문 4

한학기를 시작할 때에는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본다. 토의 점수 올리기,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기, 책 많이 읽기… 한 학기를 거슬러 뒤돌아보면 부랴부랴 수강신청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몇 번 만나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중간고사, 시험이 끝났다고 술 몇 잔을 마시고 나면 거짓말처럼 기말고사다. 문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지낸 것 같은데 이렇게 반년이 가버리고, 나는 제

자리걸음인데 학년만 올라가는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다.

캠퍼스에서 제일 처음으로 봄이 오는 곳은 학생회관이다. 여기저기 동아리 회원을 모집한다는 포스터를 보면 벚꽃이 만개한 제주대 입구를 보는



사진=강보배·고용희 기자, 신동원 수습기자, 편집=고아라 특별기자

새내기들은 자유와 책임의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

고등학생의 끽웃함을 풍기던 새내기들이 대학문화에 녹아들며 어느 새 대학생이 되어가고 있다. 새내기들이 대학에 적응해가는 방법은 각색이지만 학기를 시작하는 설렘은 모두 같다. 설렘이 가득한 그들의 대학적응기를 따라가봤다.

새내기들이 대학생이 된 후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는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새내기들은 더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 바쁘게 캠퍼스를 누비고 있다.

“졸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부터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면 끽웃하고 얘기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야 어른이 된 걸 느껴요. 대학에 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거예요. 과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고 싶구요.”

식품생명공학과 새내기로 입학한 윤선경씨의 말이다. 윤씨는 개강파티와 공과대 MT 등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대부분 참석하고 동아리도 가입할 것이라고 한다.

김진아(관광경영 1)씨는 학과 학생회에 가입했다. 김씨는 20살을 인생의 꽃이라고 표현하며 “사람들과 많이 사귀며 활발하고 명랑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고등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수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새내기들도 많다. 새내기들은 이제 짜여진 시간표 대신 자신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찾아간다. 더 이상 밤늦은 시간까지 억지로 ‘야간자율학습’을 할 필요도 없다. 짜여진 생활에서 벗어나면 흘기분할 것 같았지만 새내기들은 오히려 책임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혜경(수학 1)씨는 대학생이 된 후 고등학생때와는 달리 스스로 수업과 공부를 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응하기 어렵다고 꼽았다.

“이제 지각을 해도 혼내는 선생님도 없고,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학생이 되면 출가분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임감과 부담을 느껴요. 자유는 대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는 설레임과 대학생으로서의 부담감이 공존하는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어설프지만 이제 그들도 서서히 대학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 새내기들에게 대학은 ‘벌자국이 없는 설원’이다. 소복히 쌓인 설원에 처음 밭을 내딛는 사람처럼 새내기들이 대학에 내딛는 밭걸음은 설렘이다.

고용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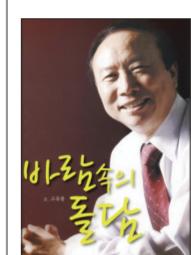
신간도서 안내

‘영어어휘 Story-telling’
김재원 교수 출간



영단어 속 숨은 이야 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놓은 책이 지난달 발간됐다. 김재원(통역대학원 한영과) 교수의 ‘영어어휘 Story-telling’. 이 책은 영어에서 사용되는 160여개 이상의 주요 어근들을 소개하고, 어근들의 의미와 그것에 붙는 접사들의 의미가 영단어들 속에서 어떠한 의미관계로 결합되는지를 풀어낸다.

고유봉 명예교수 자서전 출간



지난달 28일 퇴임한 고유봉(지구해양 과학) 명예교수가 ‘바람속의 돌담’을 펴냈다. 지난달 발간된 이 책은 고 교수 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담은 그의 자서전이다.

이 책에는 고 교수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교수 퇴임 전까지 진솔한 이야기가 모두 담겨있다.

국어문화원, 제주어로 제주문화 소개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 교수)이 제주어 구술자료 총서 3편 ‘돌각돌각 미녕 싸명 우린 늘었주’를 지난달 발간했다. 김순자 국어문화원 연구원이 채록하고 전사한 이번 총서는 강자숙 할머니의 생애를 구술한 것이다. 총에서는 강 할머니의 생애를 통해 제주인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강정호 작가 ‘대지예술 제주’ 출간



강정호(46) 사진작가가 하늘에서 펼쳐지는 제주 대지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집 ‘대지예술 제주(Art of Land, Jeju)’를 펴냈다.

강 작가는 이번 책에서 제주의 자연을 한라산, 오름, 계곡, 바다, 꽃자왈, 중산간, 돌담, 무덤군락 등 7개로 나눠 소개했다.



중국

북경/만리장성	4일
제주-북경-천안문광장-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	
상해/향주/소주	4일
제주-상해-소주출정원-향주서호-황포강유람선-외탄야경	
상해/장가계	5일
제주-상해-장가계-천자산-보봉호-황룡동굴-백룡엘리베이터	



일본

동경/후지산	4일
제주-나리타-와쿠타니개코-하코네유람선-긴자거리-신쥬쿠거리	
오사카/나라/쿄토	4일
제주-오사카-동대사-청수사-오사카성-고베	
후쿠오카	4일
제주-후쿠오카-벳부온천-아소활화산-유후인	
북해도	4일
제주-부산-삿뽀로-노보리벳츠-도야유람선-오타루운하	



해외견학 및 연수, 기업방문

세계자연유산유적지, 세계문화유산유적지, 세계유명명산, 해외감귤산업체방문, 해외물산업체방문
농업, 축산업기관방문 및 연수, 산업별 박람회 - 반도체, 기계, 건축, 제약, 바이오, 식품 등..

대만	4일	홍콩	4일	호주	6일
상해/황산	5일	제주-부산-타이페이-화련-태각로-야류-양명산온천-국립고궁박물관	제주-인천-홍콩-해양공원-리펄스베이-빅토리아산정	시드니	8일
상해/계림	5일	싱가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제주-인천-싱가폴-바탐섬-조호바루-센토사섬	미주	8일
서안/진시황릉	5일	필리핀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마일하산-히든밸리	미동부	8일
해남도	5일	마닐라	제주-인천-마닐라-팍상한폭포-마일하산-히든밸리	미서부	8일
인도	8일	인도/겐지스	제주-인천-델리-겐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캐나다	8일
베트남	5일	캄보디아	제주-인천-델리-겐지스강-황금사원-타지마할	유럽	8일
베트남북부/하롱베이	5일	캄보디아/앙코르왓	제주-인천-델리-앙코르왓사원-톤레사호수-압실라민속디너쇼	서유럽	8일
태국	8일	방콕/파타야	제주-인천-방콕-수상촌-왕궁-파타야-산호섬	동유럽	8일
북해도	4일			북유럽	8일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하니투어전문 판매대리점
JR투어

일정 및 견적문의
TEL. 748-2002

담당: 문인관 [일어일문학과졸업]

H.P.: 010 - 4693 - 2394

제이알투어(주) 제주시 연동 2312-1, 국외여행업등록 94호, 제주도의 토종기업, 34년 전통 제주렌트카 자매회사, 해외여행, 국내여행, 렌트카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업